

2018년 11월 9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FOMC 이후 장 중 하락 연준 “기업들의 투자가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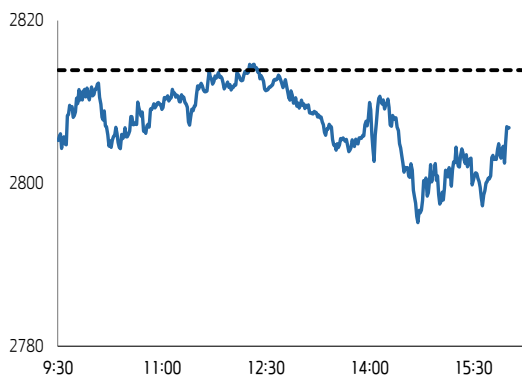
달러 및 국채금리 변화

미 증시는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특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쉘컴은 물론 일부 대형 기술주와 함께 원유시장 약세로 에너지 업종이 하락 주도. 한편, 장 후반 FOMC 이후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상승폭 확대. 이 여파로 주식시장 또한 하락 전환하거나 하락폭이 확대되기도 했으나, 장 후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다우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다우 +0.04%, 나스닥 -0.53%, S&P500 -0.25%, 러셀 2000 -0.25%)

미국 주식시장은 달러 강세 및 국채금리 상승 영향을 받아 변화를 보임. 달러화는 유로화와 파운드화 약세 여파로 여타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임. 유로화는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 이슈와 EU 의 경제전망 하향 조정(2019 년 2.0%→1.9%)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 드라기 ECB 총재가 “2019 년 여름까지 현재 금리를 유지 할 것” 이라고 주장한 점도 유로화 약세 요인. 파운드화는 아일랜드 수상이 17 일 EU 긴급 정상회담을 앞두고 “EU 와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타결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한 이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임. 한편, FOMC 결과 발표 이후 달러화는 변동성 확대. 발표 직후에는 기업 투자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장기 인플레이션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자 강세폭이 축소되기도 했음. 그러나 경제활동과 가계소비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이후 재차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폭을 확대. 12 월 금리인상을 시사했다는 분석

한편, 미국 국채금리 또한 상승. 장 초반 FOMC 를 앞두고 연준이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겠지만 12 월 금리인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2 년물 국채금리는 10 년내 최고치를 경신. 그러나 연준이 FOMC 를 통해 금리는 동결하고 기업투자가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자 금리 상승폭이 한때 축소되기도 했음. 물론 이 또한 달러화와 마찬가지로 경기개선 및 가계 소비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하자 재차 상승폭을 확대. 다만, 그 폭은 제한 적.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변화 이후 주식시장은 장중 하락폭을 확대하기도 했으나, 장 막판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다우 지수 상승 전환 성공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92.63	+0.67	홍콩항셱	26,227.72	+0.31
KOSDAQ	693.67	+1.66	영국	7,140.68	+0.33
DOW	26,191.22	+0.04	독일	11,527.32	-0.45
NASDAQ	7,530.89	-0.53	프랑스	5,131.45	-0.13
S&P 500	2,806.84	-0.25	스페인	9,177.00	+0.10
상하이종합	2,635.63	-0.22	그리스	640.67	-0.01
일본	22,486.92	+1.82	이탈리아	19,429.14	-0.5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기술주, 에너지주 부진

퀄컴(-8.16%)은 부진한 실적 발표 및 아이폰 XS 등에 모뎀칩 제공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반면 인텔(+0.55%)은 퀄컴 대신 아이폰XS에 모뎀 칩을 제공한다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 했다. 브로드컴(+2.50%)도 동반 상승했다. 마이크로칩 테크(+5.90%)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상승 했다. 페이스북(-2.42%)과 트위터(-2.31%), 알파벳(-1.23%)은 LA교외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난 이후 보안 이슈 및 테러 이슈 등이 부각되자 하락 했다. 특히 관련 SNS 업체들의 향후 비용 증가 우려감이 높아진 점이 부담이었다.

코노코필립스(-4.46%), EOG리소스(-3.94%) 등 세일오일 업체들은 국제유가 하락 및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하락했다. 특히 국채금리 상승으로 비용증가 우려감이 높아진 점은 부담이었다. JP모건(+0.81%), BOA(+1.16%) 등은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어 상승 했다. 그러나 웰스파고(+0.02%)는 주택 담보 대출 문제, 씨티그룹(-0.70%)은 소비자 신용대출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되자 보합에 그쳤다. 바이오젠(-1.65%), 화이자(-0.48%) 등은 제약 바이오주는 약가인하 우려로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3.68%	대형 가치주 ETF	-0.15%
에너지섹터 ETF	-3.18%	중형 가치주 ETF	-0.25%
소매업체 ETF	+1.22%	소형 가치주 ETF	-0.21%
금융섹터 ETF	+0.29%	배당주 ETF	-0.44%
기술섹터 ETF	-0.08%	변동성 ETF	-0.61%
소셜 미디어업체 ETF	-2.42%	대형 성장주 ETF	-0.34%
인터넷업체 ETF	-0.60%	중형 성장주 ETF	-0.29%
리츠업체 ETF	+0.18%	소형 성장주 ETF	-0.16%
주택건설업체 ETF	-1.13%	신흥국 고배당 ETF	-2.00%
바이오섹터 ETF	-0.77%	신흥국 저변동성 ETF	-1.42%
헬스케어 ETF	+0.06%	하이일드 ETF	-0.14%
곡물 ETF	-0.57%	물가연동채 ETF	-0.14%
반도체 ETF	-0.46%	Long/short ETF	+0.2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07.56	-2.20%	+1.20%	-5.81%
소재	348.64	-0.54%	+2.97%	+3.74%
산업재	614.34	-0.25%	+2.80%	-0.61%
경기소비재	884.23	+0.04%	+3.96%	+4.35%
필수소비재	581.23	+0.02%	+2.08%	+8.36%
헬스케어	1,078.32	+0.02%	+3.67%	+3.81%
금융	453.69	+0.32%	+3.62%	+3.41%
IT	1,244.57	-0.20%	+1.16%	+3.27%
커뮤니케이션	151.77	-0.93%	+0.45%	+1.85%
유틸리티	277.64	-0.27%	+2.47%	+3.35%
부동산	204.34	+0.11%	+2.54%	+7.1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매매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1.95% MSCI 신흥 지수 2.52%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884 계약) 여파로 1.20pt 하락한 271.8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0.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FOMC 이후 달러화 강세 및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폭이 확대되자 하락 했다. 한편, 기술주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 또한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달러 및 미국 국채금리 변화는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물 출회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요인이다. 더불어 국제유가 또한 재고증가가 이어지고,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란 제재를 앞두고 산유량을 증가시켜온 점 또한 부담이 되며 60달러 초반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점 또한 부담이다.

다만, 전일 중국 수출입 통계에서 보듯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대한 저가 매수 기대감을 높인다. 특히 중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미-중 무역분쟁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등 그동안 한국 증시 하락을 야기시켰던 요인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한편, 오늘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가 발표된다. 이 결과 또한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감 완화 기대감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 오늘 미국과 중국은 안보회의가 개최된다. 비록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의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미-중간 무역분쟁 또한 의제에 포함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10월 31일 중국 정치국 회의 이후 무역분쟁 관련 중국의 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일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미국은 한발씩 양보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 점도 긍정적이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달러 강세 및 미국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부진 가능성이 높지만, 낙폭이 확대되기 보다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개선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1.5만건) 보다 감소한 21.4만 건을 기록 했다. 4주 평균 신청건수도 지난주(21.4만건) 보다 감소한 21만 3,750건으로 발표되며 여전히 고용 개선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독일의 9월 수출은 전년 대비 1.2% 감소 했다. 그러나 수입은 전년 대비 5.3% 증가 했다. 한편, 전월 대비로는 수출이 0.8%, 수입이 0.4% 감소해 무역분쟁 영향으로 부진 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고점 대비 21% 하락하며 약세장 돌입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및 약세장에 접어 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하락 했다. 국제유가는 고점 대비 21% 하락하며 약세장에 들어갔다. 반면, 중국이 하루 수입량이 961 만 배럴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공급량 축소가 100~120 만 배럴에 그쳤다면 OPEC 산유량 증가 우려가 부각된 점이 부담이 되었다.

달러화는 유로화와 파운드화 약세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특히 FOMC 이후 강세폭이 확대되었다. 유로화는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 이슈와 EU 의 경제전망 하향 조정(2019 년 2.0%→1.9%)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아일랜드 수상이 17 일 EU 긴급 정상회담을 앞두고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타결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한 이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FOMC 이후 상승폭을 확대해 10 년내 최고치를 경신 했다. 장 초반 국채금리는 FOMC 를 앞두고 12 월 금리인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2 년물 국채금리는 10 년내 최고치를 경신했다. FOMC 결과 발표 이후 잠시 상승폭을 축소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12 월 금리인상을 시사했다는 점을 감안 상승세는 유지 되었다. 다만 그 폭은 제한적이었다.

금은 연준의 FOMC 를 앞두고 달러 강세 여파로 소폭 하락 마감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일부 품목은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완화에 힘입어 상승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36%, 철근은 0.94%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0.67	-1.62	-4.74	Dollar Index	96.670	+0.70	+0.41
브렌트유	70.65	-1.97	-3.07	EUR/USD	1.1363	-0.55	-0.39
금	1,225.10	-0.29	-1.09	USD/JPY	114.05	+0.47	+1.18
은	14.423	-1.00	-2.40	GBP/USD	1.3062	-0.49	+0.38
알루미늄	1,990.00	+0.25	+1.22	USD/CHF	1.006	+0.37	+0.39
전기동	6,155.00	+0.03	+1.07	AUD/USD	0.7255	-0.29	+0.68
아연	2,522.50	+2.75	-0.69	USD/CAD	1.3152	+0.31	+0.50
옥수수	373.50	+0.34	+1.84	USD/BRL	3.7606	+0.61	+0.98
밀	507.75	-0.49	-0.05	USD/CNH	6.9376	+0.28	+0.30
대두	879.00	-0.06	-0.34	USD/KRW	1117.30	-0.53	-1.83
커피	120.20	+0.63	-1.07	USD/KRW NDF 1M	1120.95	+0.44	-0.21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241	+0.55	+11.07	스페인	1.605	+0.50	+4.00
한국	2.250	0.00	-0.20	포르투갈	1.936	+1.20	+5.60
일본	0.122	-0.10	-0.10	그리스	4.314	+2.90	+10.30
독일	0.457	+1.00	+5.80	이탈리아	3.394	+6.00	+1.70